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

한영애¹, 서민숙^{2*}

¹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²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Young-Ae Han¹, Min-Sook Seo^{2*}

¹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W시에 위치한 S대학교 간호대학생 130명으로, 자료수집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인식도는 성별, 치매관련 실습 및 교육경험, 노인관련 교육경험에서, 공감은 노인관련 실습경험에서, 노인부양의식은 치매 관심 여부(있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부양의식은 공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380$, $p<.01$),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매 관심 여부(있음)($\beta=.283$, $p<.001$)와 공감($\beta=.354$, $p<.001$)으로 설명력은 21.8%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교과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치매인식도, 공감, 노인부양의식,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vergence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The participants were 130 nursing students from S University located in W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 to December 31, 2021,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entia awar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gender, dementia related practice and education experience, and elderly related educational experience, empathy in elderly related practice experience, and the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n dementia interest (Yes). The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mpathy ($r=.380$, $p<.01$), and the factor effecting the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was dementia interest (yes) ($\beta=.283$, $p<.001$) and empathy ($\beta=.354$, $p<.001$), the explanatory power was 21.8%.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ovide a nursing curriculum or program that can improve empathy ability in order to cultivate nursing students' the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Key Words : Dementia Perception, Empathy,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Nursing Students

*교신저자 : 서민숙(placebo72@sangji.ac.kr)

접수일 2022년 9월 27일

수정일 2022년 11월 28일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30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의 수도 점점 증가하였다. 국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이미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8%가 되었으며, 지속적인 고령화 현상은 노인의 건강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그 중 추정치매환자 수는 점점 증가하여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0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65세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1]. 치매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정신기능의 감퇴, 일상생활능력장애, 행동장애, 불안, 배회행동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2]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장시간의 치료와 부양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일차적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 부양자들은 상당한 부담과 고통, 가족 갈등, 우울 및 자살 등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질을 위협받게 되면서 지속적인 부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3]. 또한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축소되고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매우 약화되었고, 국가가 노인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으로 바뀌고 있다[4].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 이러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인부양의식은 개인이 노인부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의식으로, 열악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정서적 및 신체적 부양의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5]. 간호학생 시기에 형성된 치매지식은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7]. 또한 간호대학생의 부모부양 행동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 부양의식으로 조사되었다[8]. 대학생들은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부양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노인과 치매 환자를 돌보는 주체이다. 노인에게 효과적인 의료 수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 질 높은 치료와 간호 등에 도움을 주는 노인부양의식이 필요하다[9]. 따라서 여러 환경에서 노인부양을 직접 경험하게 될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치매인식은 치매태도 형성에 주요한 요

인이며[10], 치매태도는 노인부양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6]. 치매인식에 대한 설문내용이 지식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치매지식과 노인부양의식에 관계 살펴보면, Yun [7]의 연구에서는 치매지식이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았으나 Lee 등[7]의 연구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었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치매인식 수준은 노인시설의 케어워커(care worker)보다 낮아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0]. 따라서 치매에 대한 이해는 일반인이나 의료인 뿐만 아니라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에게도 필요하므로, 향후 직접 환자들을 만나게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

공감은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공유를 수반하는 인지적, 정서적 능력이다[11].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와 행동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돌봄행위에서 공감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치매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12]. 이러한 치매태도는 노인부양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청년세대(만 18-44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13]. 공감은 상호 간에 이해를 높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11]. 이에 공감이 치매환자의 언어나 행동을 그대로 인정하고 의사소통하게 함으로써 노인부양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 노인 부양의 주체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과 노인부양의식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치매지식[6,7], 치매태도[6,7], 노화지식[6], 노인태도[6]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로 치매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노인이나 치매환자를 돌보는 간호 인력은 환자에 대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 외에도 치료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도, 공감에 초점을 두어 노인부양의식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들 각 변인이 여러 영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향요인이 대부분 단순한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가 융합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융복합적 영향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치매인식도, 공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수준을 파악하

고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 함양 방안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치매인식도, 공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인식도, 공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치매인식도, 공감 및 노인부양의식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W시에 소재한 S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허락한 간호대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 산출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α .05, 공감과 노인부양의식과의 관계가 $r=.30$ 인 것을 참고하여[13],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선행문헌을 기초로 예측요인을 치매인식도[7], 공감[13], 치매교육경험[7], 노인관련 교과목 수강[9]의 4개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129명이 산출되었으며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5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13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의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총 130부(84%)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치매인식도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치매인식도는 Seoul

Metropolitan Dementia [14]에서 개발한 도구를 Lee [15]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질병 지식 5문항, 증상 지식 3문항, 치료 지식 2문항, 간호 지식 2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질문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인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였다. 본 연구에서 KR-20=.72였고, 하위영역은 질병지식 .65, 증상지식 .63, 치료지식 .67, 간호지식 .68이었다.

2.3.2 공감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은 Davis [16]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대인 간 반응성 지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Kang 등[17]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한국어판 IRI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인지적 공감(관점 수용, 환상)과 정서적 공감(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2영역 4범주로 각 범주 당 7문항이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장이다' 0점에서 '나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 등[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0$ 이었고, 하위영역은 관점 수용 .61, 환상 .81, 공감적 관심 .73, 개인적 고통 .71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4$ 였고, 하위영역은 관점 수용 .76, 환상 .75, 공감적 관심 .72, 개인적 고통 .77이었다.

2.3.3 노인부양의식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은 Turkman과 Lorgo [18]가 개발한 도구를 Sim [19]이 수정·보완하고 Woo [20]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경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각 6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반대' 1점에서 '매우 찬성'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Woo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 이었고, 하위영역은 경제적 부양의식 .82, 정서적 부양의식 .89, 신체적 부양의식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 이었고, 하위영역은 경제적 부양의식 .80, 정서적 부양의식 .86, 신체적 부양의식 .87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간호학과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자료수집 내용 및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 한 후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 진행이 승인된 장소에서 코로나19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작성 시간은 약 15분정도 소요되었고, 작성 후 바로 회수하여 개별 봉투에 넣어 밀봉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의 값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치매인식도, 공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노인부양의식의 융복합적 영향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1040782-210802-HR-16-89)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참여 절차, 연구 참여에 대한 이익과 위험, 연구 도중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았다.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코드화되어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였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과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된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109명(83.8%)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21.55 ± 1.88 세였고 22세 이하가 91명(70.0%), 23세 이상이 39명(30.0%)이었다. 학년은 4학년 42명(32.3%), 3

학년 39명(30.0%) 순이었으며, 치매관련 실습경험이 없는 경우 107명(82.3%)이었고, 치매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72명(55.4%)이었다. 노인관련 실습경험이 없는 경우 84명(64.6%),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85명(65.4%), 치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가 101명(77.7%)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21(16.2)
	Female	109(83.8)
Age(year)		21.55±1.88
	≤ 22 year	91(70.0)
	≥ 23 year	39(30.0)
Grade	1st	23(17.7)
	2nd	26(20.0)
	3rd	39(30.0)
	4th	42(32.3)
Dementia related practice experience	Yes	23(17.7)
	No	107(82.3)
Dementia related education experience	Yes	72(55.4)
	No	58(44.6)
Elderly related practice experience	Yes	46(35.4)
	No	84(64.6)
Elderly related education experience	Yes	85(65.4)
	No	45(34.6)
Dementia interest	Yes	101(77.7)
	No	39(22.3)

3.2 대상자의 치매인식도 정답률

대상자의 치매인식도 정답률 및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치매인식도는 전체 평균 10.20 ± 1.3 점(정답률 85.0%)이며, 하위요인은 간호 지식이 평균 $1.94 \pm .27$ 점(정답률 96.9%)으로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 치료 지식이 평균 $1.12 \pm .64$ 점(정답률 55.8%)으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대상자의 치매인식도 정답률 중 가장 높은 문항은 '치매환자는 판단력이 없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간병해도 된다'로 99.2%였고, 가장 낮은 문항은 '완치가 가능한 치매가 있다'로 27.7%였다.

<Table 2> Dementia Perception Correct Answer rate (N=130)

Item	n or M±SD	%
Dementia affects everyone as they get older	117	90.0
Alzheimer's disease is the most common cause of dementia	112	86.2
Stroke Can Cause Dementia	110	84.6
There is no way to prevent dementia	117	90.0
Regular exercise lowers your risk of dementia	120	92.3
Disease knowledge	4.43±.73	88.6
If you can remember things from a long time ago, you don't have dementia	121	93.1
Dementia can only be seen when exhibiting unusual behavior	108	83.1
Symptom knowledge	2.71±.57	90.5
Dementia is curable	36	27.7
Medication can help with dementia	109	83.8
Dementia can change your personality	124	95.4
Therapeutic knowledge	1.12±.64	55.8
Dementia makes it impossible to live with family	123	94.6
Dementia patients do not have the ability to judge, so they can be cared for without explanation	129	99.2
Nursing knowledge	1.94±.27	96.9
Total M±SD	10.20±1.30	
Total Correct Answer rate	85.0%	

3.3 대상자의 공감 및 노인부양의식 정도

대상자의 공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공감은 전체 평균 2.57±.34점이며, 하위요인은 관점과 환상을 포함한 인지적 공감이 2.70±.44점,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을 포함한 정서

<Table 3> Levels of Empathy, and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N=130)

Variables	Range	M±SD
Empathy	0-4	2.57±.34
Cognitive empathy	0-4	2.70±.44
Perspective acceptance	0-4	2.78±.57
fantasy	0-4	2.62±.62
emotional empathy	0-4	2.45±.42
empathic interest	0-4	2.81±.55
personal pain	0-4	2.10±.66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1-5	4.08±.51
economical	1-5	3.62±.66
physical	1-5	4.42±.53
emotional	1-5	4.22±.61

적 공감이 2.45±.42점으로 정서적 공감의 점수가 낮았다. 노인부양의식의 전체 평균은 4.08±.51점이며, 하위요인은 신체적 부양의식이 평균 4.42±.53점, 정서적 부양의식이 평균 4.22±.61점, 경제적 부양의식이 평균 3.62±.66점 순이었다.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인식도, 공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인식도, 공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치매인식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18, p=.031$), 남자가 여자보다 치매인식도가 높았다. 치매관련 실습경험($t=2.42, p=.019$), 치매관련 교육경험($t=3.22, p=.002$), 노인관련 교육경험($t=3.69, p<.001$)에 따른 치매인식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치매관련 실습 및 교육경험,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치매인식도가 높았다. 공감은 노인관련 실습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54, p=.012$), 실습경험이 없을 때가 있을 때보다 공감 수준이 높았다. 노인부양의식은 치매 관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76, p<.001$) 치매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노인부양의식이 높았다.

3.5 대상자의 치매인식도, 공감 및 노인부양의식 관계

대상자의 치매인식도, 공감 및 노인부양의식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은 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은 높아졌다($r=.380, p<.01$).

3.6 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

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유의하게 나온 치매 관심 여부(있음)와 변수인 치매인식도 및 공감을 예측요인으로 노인부양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Durbin-watson값을 확인한 결과 2.136로 기준값인 1-3 사이에 있으므로 자기 상관성이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공차한

〈Table 4〉 Differences in Dementia Perception, Empathy, and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mentia Perception		Empathy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10.76±.94	2.180 (.031)	2.47±.38	-1.631 (.105)	4.08±.61	-.085 (.932)
	Female	10.09±1.34		2.60±.33		4.09±.49	
Age(year)	≤ 22 year	10.10±1.34	-1.800 (.074)	2.56±.33	-.838 (.404)	4.09±.51	.290 (.772)
	≥ 23 year	10.51±1.19		2.62±.36		4.07±.53	
Grade	1st	9.87±1.66	.893 (.447)	2.72±.28	2.364 (.074)	4.17±.39	.314 (.816)
	2nd	10.27±1.19		2.52±.34		4.06±.52	
	3rd	10.13±1.21		2.61±.32		4.10±.58	
	4th	10.40±1.31		2.51±.34		4.04±.51	
Dementia related practice experience	Yes	10.65±.88	2.421 (.019)	2.53±.31	-.700 (.485)	4.24±.59	1.649 (.102)
	No	10.10±1.37		2.59±.35		4.05±.49	
Dementia related education experience	Yes	10.63±1.12	3.224 (.002)	2.55±.35	-1.277 (.204)	4.07±.50	-.454 (.560)
	No	9.80±9.80		2.62±.32		4.11±.53	
Elderly related practice experience	Yes	10.37±1.16	1.094 (.276)	2.47±.32	-2.544 (.012)	4.11±.56	.422 (.674)
	No	10.11±1.38		2.63±.34		4.07±.49	
Elderly related education experience	Yes	10.49±1.23	3.691 (.001)	2.55±.35	-1.311 (.192)	4.11±.50	.664 (.508)
	No	9.64±1.30		2.63±.31		4.04±.53	
Dementia interest	Yes	10.25±1.31	.772 (.442)	2.59±.35	.848 (.398)	4.17±.48	3.763 (.001)
	No	10.03±1.32		2.53±.30		3.79±.51	

계(Tolerance)와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이용하였으며, 공차한계는 0.990~0.992로 0.1 이상, 분산확대인자는 1.010~1.008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12.961, $p < .001$), 수정된 회귀계수($adj R^2$)는 .218로 21.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치매인식도는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beta = .091, p = .244$), 치매 관심여부(있음)($\beta = .283, p < .001$)와 공감($\beta = .354, p < .001$)이 노인부양의식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공감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nvergent Influence Factors on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N=130)

Variables	B	β	t	p
Constant	2.073			
Dementia interest(Yes)	.346	.283	3.61	<.001
Dementia Perception	.036	.091	1.17	.244
Empathy	.535	.354	4.53	<.001
$adj R^2$.218			
F(p)	12.961(<.001)			

〈Table 5〉 Correlations among Dementia Perception, Empathy, and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N=130)

Variables	Dementia Perception	Empathy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r(p)	r(p)	r(p)
Dementia Perception	1		
Empathy	.051	1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129	.380**	1

** $p < .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노인부양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치매인식도 정도는 평균 10.20점(12점 만점, 정답률 85.0%)으로, 본 연구와 도구는 상이하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Nam [10]의 10.88점(15점 만점), Kwon과 Lee [21]의 15.86점(30점 만점, 52.8%)보다 높은 결과이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

용하여 중·장년 여성의 치매인식도를 확인한 Lee [15]의 7.5점(62.6%)보다도 높았다. 하위영역에서는, 간호 지식이 1.94점(2점 만점, 96.9%)로 가장 높았고 치료 지식이 1.12점(2점 만점, 55.8%)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Lee [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문항별 정답률은 최저 27.7%에서 최고 99.2%로, 문항에 따라 치매인식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들이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문항은 '치매환자는 판단력이 없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간병해도 된다'(99.2%)로 간호 지식 문항이었는데, 이는 같은 문항을 조사한 Lee [15]의 정답률 67.0%에 비해 높았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정답률은 '완치가 가능한 치매가 있다'(27.7%)로, Lee [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의학적 영역에서의 낮은 치매지식은 질환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치매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 따라서 의학적 치료 지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치매지식을 인지시킴으로써 치매환자를 대하는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치매인식도 점수는 다소 높은 수준의 점수였으나 문항 간 정답률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다. 이에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인식개선 교육으로 치매 증상 및 치료 지식을 비중있게 포함한 교육을 구성하여 간호학생들이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전문 지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인식도는 성별, 치매관련 실습경험, 치매관련 교육경험, 노인관련 교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치매관련 실습경험, 치매관련 교육경험 및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치매인식이 높았다. Kwon과 Lee [21]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치매지식이 더 높았으며 1, 2학년에 비해 3, 4학년의 치매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는 상반된 연구결과이다. Kwon과 Lee [21]의 연구에서는 3학년때부터 시작되는 치매 교육으로 인해 3, 4학년의 치매 지식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치매가 각종 매체에서 자주 다루는 주요 질환으로 자연스럽게 정보에 노출되면서 치매지식을 습득하게 되어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치매지식의 의학적 측면의 지식이 매우 낮게 나왔으므로 의학적 측면의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Kwon과 Lee [21], Yun [7]의 연구에서는 치매관련 교육경험, 치매환자 돌봄 경험에 따라 치매 지식수준이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치매관련 실습 및 교육경험,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있을수록 치매인식도가 높게 나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Park 등[22]은 노인간호 교육을 제공한 실험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노인간호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 만성질환은 점점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노인 및 노인 만성질환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노인 및 노인 만성질환의 이해를 높이는 데 매우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2학년에서는 노인 봉사활동, 노인 만성질환 특강 등을 통해 노인 및 노인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3, 4학년의 경우 노인관련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노인간호의 경험을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학년별 차이를 고려하여 치매인식을 높일 수 있는 이론과 실습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공감 정도는 최대 5점 기준에 평균 2.57점(5점 만점)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공감 수준을 확인한 Bae [23]의 3.39점보다 낮은 결과이다. Kim과 Yi [24]의 연구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감소하여 1학년보다 4학년의 공감 능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3, 4학년으로 진급할수록 어려워지는 전공과목과 실습교육 등으로 인해 공감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로 공감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타 연구에 비해 대상자들의 공감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3, 4학년의 경우 이론과 실습수업의 상당 부분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비대면 학습으로 인해 학우 및 환자와의 상호 교감의 기회가 적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감 수준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대면 이론강의 및 실습교육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노인관련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에 공감이 낮았는데, 이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공감 능력이 낮았던 Kim과 Yi [24]의 연구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 높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25]. 따라서 임상실습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와의 공감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위영역에서는 인지적 공감이 2.70점, 정서적 공감이 2.45점으로 정서적 공감이 더 낮았는데, 이는 Kang

[2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간호교육과정 중 과학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정서적 측면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27]. 따라서 다양한 사례 경험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서적 공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하위영역의 세부 범주에서는 공감적 관심 2.81점, 관점 수용 2.78, 환상 2.62점, 개인적 고통관심 2.10점 순으로 공감적 관심이 가장 높고 개인적 고통관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Bae [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개인적 고통관심의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위급한 상황에서 잘 통제하지 못하는 편이다'와 '나는 누가 다치는 것을 보고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편이다'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타인의 감정에 동감해 주는 공감적 관심에 비해 개인의 불안과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 같은 개인의 자기중심적인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의 정도는 최대 5점 기준에 평균 4.08점으로, 동일한 도구와 대상으로 한 Yun [7]의 4.05점과 비슷했다. 본 연구와 도구는 상이하나 동일한 대상으로 한 Lee 등[6]의 3.85점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신체적 부양의식(4.42점), 정서적 부양의식(4.22점), 경제적 부양의식(3.62점) 순으로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 Yun [7]과 Woo [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온 Park과 Lim [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경제적 부양의식의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나에게 여유가 없더라도 노인의 생활비를 지원한다'와 '노인이 원하면 인제든지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가 근소한 차이로 모두 가장 낮았는데 Woo [20]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로 부모로부터 모든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낮은 노인부양의식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를 보인 것은 치매 관심 여부로 치매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치매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가 77.7%로 중앙치매센터 조사에서 '관심 있음' 비중이 72.8%로 나온 결과와 비슷하다[28]. 또한 치매관심 정도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29], 치매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Lee 등[6]과 Yun [7]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지식 뿐만 아니라 실습이나 봉사활동을 통한 직접 경

험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의 노인이나 치매관련 실습경험이 '없다'가 각각 64.6%, 82.3%로 높게 나타나 실습경험이 부족하다. 이에 치매관련 교과목 이외에 부족한 실습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노인부양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 연구결과, 세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공감과 노인부양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청년세대와 중년세대를 비교 분석한 Lim과 Chung [13]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에게 공감이 노인부양의식에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공감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에게 정서적, 인지적 영역의 공감의 자세로 상호 간의 이해를 높여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므로[11] 노인부양의식의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공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은 대상자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치매 관심 여부(있음)와 변인인 공감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1.8%였다. 이 중 공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관심은 치매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29] 긍정적 태도는 노인부양의식을 높일 수 있다[6,7]. 공감은 노인인 치매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11] 노인부양의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노인세대에 대한 공감은 노인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주었다[13]. 따라서 노인부양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관심과 공감 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치매관심도와 치매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30] 치매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자들의 공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성별과 실습 유무로 남성과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우에 공감 능력이 낮았다[24]. 따라서 공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용

복합적 영향요인을 확인한 본 연구는 노인부양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공감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강원도 W시의 일 대학에서 편의표집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인식도는 성별, 치매관련 실습 및 교육경험, 노인관련 교육경험에서, 공감은 노인관련 실습경험에서, 노인부양의식은 치매 관심 여부(있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부양의식은 공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치매 관심 여부(있음)와 공감이 노인부양의식을 높이는 영향요인이었다. 따라서 노인부양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교과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차이를 고려한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변인간의 인과적 경로를 밝힘으로써 노인부양의식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I.S.Ko, J.W.Seo, J.S.Lee, M.J.Kang, O.J.Lee and M.Y.Kwak, "Korean Dementia Observatory 2021", Annual Report Seoul Central Dementia Center; Report Number. NMC-2022-0031-10, 2022.
- [2] A.Arai, T.Ozaki and Y.Katsumata,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in Older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Japan: A Cross-sectional Study," *Aging & Mental Health*, Vol.21, No.10, pp.1099-1105, 2017.
- [3] Y.W.Kim and S.H.Byun, "Effects of the Burden on the Quality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Family Caring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11, No.1, pp.105-119, 2020.
- [4] N.R.Kim,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ublic Support System Through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Kookmin Law Review*, Vol.40, No.2, pp.243-273, 2016.
- [5] D.A.G.Hong and K.Y.Ha, "Effect of Grandchildren's Solidarity with their Grandparents on Caring Attitude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1, No.2, pp.107-121, 2002.
- [6] E.M.Lee, M.K.Kim, S.S.Jung, Y.S.Son, M.Y.Go, S.J.Kim and H.R.Nam, "The Effect of Knowledge and Attitude on Dementia, Elderly Caring Attitude on the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among Nursing Student," *Nursing and Health Issues*, Vol.27, No.1, pp.10-18, 2022.
- [7] M.J.Yun,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of Dementia, and Awareness of Care Giving for Elderly among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1, pp. 419-426, 2019.
- [8] Y.S.Bae, S.H.Lee, J.S.Kim, M.H.Kim and K.S.Sun, "Supporting Behavior of Parents and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46-54, 2008.
- [9] K.M.Park and D.Y.Lim,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Regarding Aging,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20, No.2, pp.2-12, 2016.
- [10] H.R.Nam, "The Effect of Perception, Attitude, and Anxiety of Nursing Students on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with Dementia," *Korea Society of Nursing Research*, Vol.3, No.1, pp.51-59, 2019.
- [11] P.McEvoy and R.Plant, "Dementia Care: Using Empathic Curiosity to Establish the Common Ground that is Necessary for Meaningful Communication,"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1, No.6, pp.477-482, 2014.
- [12] A.Y.Park, "A Study of Knowledge about Dementia, Empathy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in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1, pp.389-397, 2018.
- [13] J.S.Lim and S.D.Chung, "Factors Affecting the Awareness of Elderly Support: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Young and Middle Age Gener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58, pp.37-66, 2017.
- [14] D.Y.Lee, S.J.Lee, Y.H.Kim, J.H.Kim and B.Y.Kim, "Dementia Awareness Survey for Seoul Citizens," *Seoul Metropolitan Dementia*, 2014.
- [15] J.Y.Lee, "The Study on the Perception and Preventive Education Needs of Dementia for the Middle and Old-aged Woman," Master Thesis, University of

Hanyang at Seoul, 2014.

[16] M.H.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4, No.1, pp.113-126, 1983.

[17] I.Kang, S.W.Ki, S.E.Kim, B.S.Jeong, J.H.Hwang, J.E.Song and J.W.Kim,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 Association*, Vol.48, No.5, pp.352-358, 2009.

[18] J.Turkman and I.Lorgo,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37, pp.249-260, 1953.

[19] E.J.Sim, "A Positive study on the difference of consciousness of supporting elders among generations," Master Thesis, University of Hanyang at Seoul, 1998.

[20] H.H.Woo,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of Dementia, and Supporting Awareness of Care Giving for the Elderly among Students of High School Specialized in Health," Master Thesis, University of Hanyang at Seoul, 2017.

[21] M.S.Kwon and J.H.Lee,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9, pp.177-185, 2017.

[22] S.J.Park, K.S.Park and Y.J.Kim, "The Effects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ttitude, Perception toward Dementia and Dementia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467-4477, 2015.

[23] J.H.Bae,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its Related Factors in Nursing Student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Vol.12, No.1, pp.271-278, 2018.

[24] H.J.Kim and M.S.Yi,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237-245, 2015.

[25] H.J.Lee and Y.J.You, "The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Empathic Practice Among Social Workers: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Ident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36, pp.1-21, 2016.

[26] S.Kang,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Humanistic Literacy and Empathy Abili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1, pp.35-43, 2020.

[27] J.Ward, J.Cody, M.Schaal and M.Hojat, "The Empathy Enigma: An Empirical Study of Decline in Empathy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28, No.1, pp.34-40, 2012.

[28] S.Y.Lee, H.R.Song, J.G.Jang, M.H.Hong and H.S.Jeong,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cognition Survey for Dementia," Final Report Seoul Central Dementia Center; Report Number. NDR-2101-0037, 2022.

[29] K.H.Kim, D.S.Son, H.J.Kim and J.W.S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trengths of Elderly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53, pp.341-365, 2015.

[30] J.Y.Lee, "A Study on Interest and Knowledge of Dementia in Elderly Population," Master Thesis, University of Hanyang at Seoul, 2014.

한 영 애(Young-Ae Han)

[정회원]



- 2004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관리학과(보건학석사)
- 2022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관심분야>

간호핵심술기, 성인간호

서 민 숙(Min-Sook Seo)

[정회원]



- 2006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5월 ~ 현재 :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중환자간호, 응급간호